

기업경제인과의 간담회 대화 (포스코에서)

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

그동안 노동자를 많이 도왔습니다.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교육도 많이 하러 다녔고 또 많이 도와줬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노동 운동을 도울 수 없게 상황이 되어있습니다.

노동운동과 함께 생활향상, 근로조건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노동 운동을 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. 민노총이야말로 대규모 기업들로 되어있습니다. 협력업체 노동자와, 비정규직 노동자의 두 배, 세배를 받는 사람들이 뭉쳐서 노동 운동을 앞장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.

국회와 정부 언론을 상대로 지휘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으나, 노동자간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격차해소하자고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해야 하고 대책 없이 계속 강경투쟁만 합니다. 부득이 새로운 정부로서는 법과 힘으로 밖에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.

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일류니깐 식당을 따로 쓰니까 밥도 따로 먹고 말로만 이런 걸 얘기

합니다. 사회 빈민층 서민들의 주거문제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등 생활 안정에 관한 문제들을 노동운동이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다. 참으로 난감합니다.